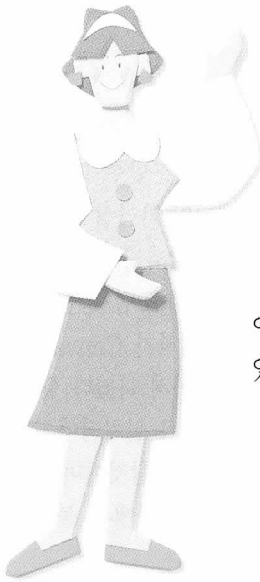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할 때입니다



A부서는 줄다리기가 무적이라는데

남자 사원이 부족한 A부서에 정년을 바라보는 K부장이 팔뚝을 걸어 붙이고 나섰습니다.

영차, 영차, 여 - 영 - 차 맨 앞에서 줄을 당기는 H사
우는 신입사원으로서 힘과 패기를 가지고 힘차게 당겼습니다.

A부서의 줄다리기가 무적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힘과 패기에 넘친 사원과 팀을 위해 선선히 나서주는 老부장의 뜻심
이 바로 “나” 보다는 “우리” 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지혜와 용기의 결과
였습니다.

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라는 공동체의 의식 속에서 안전을 생각해 봅시다

산재예방활동

휴머니즘 차원에서 전개해야

우리가 산재예방활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산업현장에서 수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의 문제가 어떠한 경제논리가 아닌 인간존중의 의미가 내재된 숭고한 휴머니즘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무재해가 곧 무이자, 생산성의 극대화로 이어집니다

당신의 안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나무 잘 타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워 할 원숭이도 때로는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당신은 일에 관한 한 누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아도 좋을 만큼 오랜 경험을 가진 숙련자일 것입니다.

스스로 작업의 위험여부를 가릴 줄 알고 그래서 별로 위험하지 않다 싶을 때는 일부 안전수칙을 무시해 버리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숭이도 때로는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데 당신만은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계십니까?

위험 없는 무재해 현장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인간이 존경받는 사회!

이는 산업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의 바램입니다.

더불어 무재해의 현장을 꿈꾸는 우리 모두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안전은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